

## 우애와 자애로 포장된 통제\*

- 唐 玄宗의 諸王 관리 -

金 滸\*\*

— <차 례> —

1. 머리말
2. 諸王 통제의 배경
3. 玄宗의 諸王 통제 방식
4. 맺음말

### 【국문초록】

통치기간을 ‘開元之治’라는 盛世로 평가받았던 玄宗은 역시 ‘貞觀之治’의 태종처럼 공정정변을 거쳐 황제로 즉위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둘 다 諸王의 신분으로서 공정정변을 일으키고 즉위한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2037052).

\*\* 慶南大學校 孤雲學研究所 研究教授

이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과제는 諸王이 또 다시 정변을 일으키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태종에 이어 현종시기 諸王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태종 시기 諸王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이래, 武則天 통치시기 ‘王’이라는 작위, 諸王이라는 존재가 예우만을 갖는 허상일 뿐 실질적 권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지위였다. 臨淄王 隆基는 中宗 복위 후 일련의 정변과정 속에서 금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밀리에 羽林兵士들을 모았던 것처럼 禁軍을 활용하여 거사를 도모했고, 정변에 성공한 후에는 諸王에 대한 관리를 진행시켰다. 睿宗이 다시 즉위한 景雲 元年(710) 직후에는 현종의 형제들이 左右羽林軍 및 南衙 諸衛의 대장군직까지 맡아 皇權을 보위하고 있었다. 이는 太平公主 일파의 병변을 쉽게 끝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황제로 즉위한 현종은 형제들의 禁軍職을 과하고 태종 이래로 견지해 온 刺史職 또는 司空·司徒·太子少保와 같은 명예직을 부여했다. 태종시기부터 諸王을 자사직에 임명했던 관례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먼 지방으로 보낸다면 우애 깊기로 잘 알려진 현종에게는 모순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 따라서 현종은 우애라는 美名 아래 형제들을 長安城 내에 함께 거주시켰다. 이 방법은 武則天 통치시기 현종 자신이 경험했던 바에 착안했던 것이다. 臨淄王 시절 자신과 그의 형제들에게 취했던 武則天의 五王宅은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조치였고, 현종이 즉위 후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야말로 분명 감시와 통제기능을 활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종은 한정된 공간, 감시 가능한 공간을 우애로 포장하여 황제 자신도 왕래하며 형제들에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통제의 테두리를 자연스럽게 설정하였다. 형제들을 함께 거주시키는 방법은 皇子·皇孫들에게도 적용시켜 十王宅·百孫院을 만들었다. 이들에게는 虛衛의 관직을 임명하고 함께 거주시키면서 宦官으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현종은

諸王을 황권에 대한 도전자·경쟁자로서의 성격에 주안점을 두고, 태종의 諸王 관리 방법 가운데 虛衡의 관직임명을 활용하는 한편, 형제들에 대한 우애와 자손들에 대한 자애를 내세워 함께 거주시키는 방법으로 통제했던 것이다. 이는 정변을 거쳐 즉위한 황제가 또 다른 정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형제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우애를 표현하고, 황자·황손들에게는 늘 가까이서 보살핀다는 자애를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갇힌 공간이라 느끼지 못하게 했다. 현종 통치시기 과장된 盛世를 묘사하는데 덧붙여진 황제의 ‘우애와 자애’의 이면에는 ‘감시와 통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황실의 율타리이자 황권에 대한 도전자도 될 수 있는 兩刃之劍의 諸王은 唐 前期의 궁정정변을 거치며 후자로서의 성격만 부각되어 통제의 대상이 되어 갔던 것이다.

**주제어:** 현종 황제 제왕 금군 정변 십왕택 백손원

## 1. 머리말

太液池 기슭에는 대나무 수십 떨기가 있는데 죽순은 서로 떨어진 적 없이 촘촘하게 심어진 것 같았다. 황제가 대나무 사이에서 諸王과 한가로이 거닐다가 諸王에게 말하기를 “인간 세상의 父子兄弟는 오히려 마음도 떨어져 있고 뜻도 떨어져 있으나 이 대나무는 가지와 뿌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 離間하려는 뜻을 품었다면 이 대나무를 보고 가히 거울삼을 만하지”라 하였다. 諸王이 모두 공손하게 그렇다고 하였다. 황제가 ‘竹義’라고 일컬었다.<sup>1)</sup>

1) 『開元天寶遺事』 卷下, p.60, “太液池岸有竹數十叢, 牙笋未嘗相離, 密密如栽也. 帝因與諸王閒步於竹間, 帝謂諸王曰: 『人世父子兄弟尚有離心離意, 此竹宗本不相疎. 人有懷懷貳心心生離間之意, 觀此可以爲鑑.』 諸王皆唯唯, 帝

위 글은 玄宗이 長安城 大明宮의 북쪽에 있는 정원의 太液池 즉 蓬萊池를 諸王과 산책하며 그들에게 건넨 말이다. 玄宗은 諸王 신분으로서 정변을 일으켜 부친을 황위에 앉히고, 곧 禪位에 의해 즉위했기에 諸王의 皇權에 대한 도전성을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나무의 속성을 빗대어 孝弟와 友愛를 강조하면서 諸王의 복종을 유도한 것이다.

玄宗은 중국 역대 황제들 가운데 우에 깊은 황제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고의 기록을 보유한 황제였다. 唐朝 황제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인 45년을 재위했고, 78세로 사망하여 가장 長壽했던 황제로도 꼽히며, 슬하에 30명의 皇子를 두어 皇子數도 가장 많았던 황제였다. 황실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諸王의 數는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皇權 도전에 가능한 잠재적 경쟁자도 많다는 측면에서 이들에 관한 관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더구나 玄宗 자신도 정변을 거쳐 황위를 차지했으므로 황위쟁탈전 재발방지를 위해 諸王을 적절히 관리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매우 자연스럽다.

唐初 연이은 궁정정변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諸王에 대한 통제정책은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다. 諸王을 포함한 종실 전체 구성원이 황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률을 적용했던 실례를 분석한 것을 비롯하여,<sup>2)</sup> 太宗과 玄宗의 諸王 통제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한 것도 있었다.<sup>3)</sup> 唐初 諸王 분봉에 대한 법률규정을 근거로 실상을 분석하거나,<sup>4)</sup> 諸王의 거주지역을 토대로 諸王 관리를 고찰하고,<sup>5)</sup> 나아가 이들 거주지역을 宦官이 관리함으로써 唐 後期 宦

呼爲「竹義」.”

2) 劉思怡, 「唐代宗室法律管理情況研究」, 『唐史論叢』 24, 2017.

3) 張紅, 「唐太宗與唐玄宗皇子封王特點之比較」, 『宜春學院學報』 34-10, 2012.

4) 金濤, 「唐初의 諸王 책봉제」, 『中國史研究』 125, 2020.

5) 布目潮瀨, 「唐代長安における王府・王宅について」, 『布目潮瀨中國史論集』

官專權으로 이어지는 정황을 분석한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6)</sup> 선행한 연구를 참조하면서 현종의 諸王 통제에 대한 특징과 그 의의를 조명해 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玄宗이 臨淄王 신분으로 정변을 주도하고 皇位를 차지한 후, 諸王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주안점이므로 시기적 범주는玄宗의 諸王 시절부터 즉위 초까지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資治通鑑』과 兩唐書 本紀를 토대로 정변의 정황을 고찰하면서 현종의 諸王 통제에 대한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현종이 통제·관리했던 諸王은 그의 형제와 황자들로 제한한다. 즉, 부친睿宗의 형제들은 대부분 武則天 통치시기에 제거되었고, 숙부中宗의 황자 4명 가운데, 重潤·重福은 武則天時期, 重俊·重茂는 현종 즉위 전 정변과정에서 살해되었으므로 현종시기의 諸王으로는 다루지 않지만, 현종의 諸王 통제 배경이 되는 일련의 정변과정에서 살펴본다. 이에 근거하여 현종시기 그의 형제들과 황자들에 대한 관리가 唐初부터의 諸王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켰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는 역시 정변을 거쳐 즉위한 태종이 취했던 諸王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sup>7)</sup>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려는 것으로 唐前期의 諸王 관리를 通時的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唐帝國을 바라보는窓은 정치·경제·사회·종교·문화의 범주에서부터 인물·제도·전쟁·외교 등으로까지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본 연구는 황제 주변의 혈연적 유대관계가 가까운 인물 가운데 諸王을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통해 唐帝國 황실사의 단면을 이해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궁정정

下卷, 汲古書院, 2003.

6) 孫英剛, 『隋唐長安의王府與王宅』, 『唐研究』 9, 2003.

7) 金澁, 『唐太宗 貞觀年間の 諸王 관리』, 『大丘史學』 143, 2021.

변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종 정변을 통해 즉위한 玄宗의 諸王 관리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는 단순히 제도적인 고찰에만 그치지 않고, 帝國 전체를 통치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틀을 제공할 것이다. 전통왕조의 諸王은 황실의 울타리이자, 황권에 대한 도전자가 될 수도 있는 兩刃之劍이었기에 황제는 이들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唐 前期 몇 차례의 궁정정변을 거치며 점차 약화해갔던 諸王의 위상은 결국 唐朝를 쇠락의 방향으로 흐르게 했던 하나의 요소가 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2. 諸王 통제의 배경

垂拱 4년(688) 武則天이 혁명을 준비하며 李唐 宗室을 점차 배제하자 諸王 측에서 저항이 나타났다. 高祖의皇子이자 太宗의 이복형제들 중 韓王 元嘉, 霍王 元軌, 魯王 靈夔, 태종의 第 8子 越王 貞, 元嘉의 아들 黃國公 譔, 元軌의 아들 江都王 緒, 高祖의 第 15子 虢王 鳳의 아들 東莞公 融, 靈夔의 아들 范陽王 藹, 그리고 월왕 貞의 長子 琅邪王 沖 등 9명은 宗室에서 才智와 德行있는 자들로 匡復의 의지를 모았다.<sup>8)</sup> 한왕 원가는 武則天이 諸王을 살육하여 皇家子弟의 핏줄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긴장감을 조성하며 위조한 璽書를 沖에게 보냈고, 沖은 여기에 ‘武則天이 李唐의 社稷을 武氏에게 옮긴다’는 말을 덧붙여 諸王에게 전달하였다. 이 가운

8) 『資治通鑑』 권204, 『唐紀20』, 則天后垂拱四年, p.6449, “太后潛謀革命, 稍除宗室, 絳州刺史韓王元嘉·青州刺史霍王元軌·荊州刺史魯王靈夔·豫州刺史越王貞及元嘉子通州刺史黃公譔·元軌子金州刺史江都王緒·虢王鳳子申州刺史東莞公融·靈夔子范陽王藹·貞子博州刺史琅邪王沖, 在宗室中皆以才行有美名, 太后尤忌之. 元嘉等內不自安, 密有匡復之志.” 그런데 『舊唐書』 권 76, 『太宗諸子』, p.2661에는 虢王의 아들 融이 빠진 8명만 기록되어 있다.

데 범양왕 藹가 월왕 父子에 적극 호응하였다.<sup>9)</sup> 그는 월왕 貞 父子에게 여러 곳에 있는 諸王이 동시에 모두 거병하면 성공할 것이라 했지만, 거사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沖이 먼저 거병하였다. 그의 거병은 불과 7일 만에 평정되었고, 부친 월왕이 뒤이어 군사를 일으켰지만 20여일 만에 역시 진압당했다. 이와 같이 李唐皇室을 복원하려던 시도는 한달도 채 못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武則天의 執政에 저항하는 종실의 거병이 실패로 끝난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전개되었기 때문인 원인도 설득력 있다.<sup>10)</sup> 그러나 唐朝 창업이래로 꾸준히 諸王에 대한 통제를 해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태종이 諸王 시절 자신이 누렸던 것과는 달리 즉위 후 諸王의 군사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諸王에게 刺史職을 부여하여 京師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러 곳에 분산시켜 王府 관료들로 하여금 감시했던 점을 고려해 볼직 하다.<sup>11)</sup> 이러한 조처는 諸王이 거사를 도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했다. 즉, 거사 도모시의 병력은 임시로 募兵한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했는데 이들은 忠義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쉽게 와해될 수밖에 없었고, 거사계획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했던 것이다.<sup>12)</sup> 武則

9) 『資治通鑑』 권204, 「唐紀20」, 則天后垂拱四年, p.6451, “初, 範陽王藹遣使語貞及沖曰: 「若四方諸王一時並起, 事無不濟。」 諸王往來相約結, 未定而沖先發, 惟貞狼狽應之, 諸王皆不敢發, 故敗.”

10) 黃約琏, 「試論垂拱4年李唐宗室反武之役」, 『唐代文化研討會論文集』, 文史哲出版社, 1991. 越王은 거병 준비를 치밀하게 하지 않고 諸王은 武則天을 두려워하여 반란에 호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11) 金濂, 「唐太宗貞觀年間的諸王 관리」, 『大丘史學』 143, 2021, p.277.

12) 琅邪王 沖은 5천여명의 병사를 모았으나 무리를 統帥하던 董玄寂이 “琅邪王이 국가와 전쟁하는 것은 반란이다”라고 외치자 沖이 그를 참수했고, 이를 두려워한 병사들이 숲속으로 흩어져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결국 沖을 따르는 자는 10명 남짓이었다(『舊唐書』 권76, 「太宗諸子傳」, p.2663). 거사계획을 추진할 당시 韓王·魯王·霍王·越王·紀王의 五王은 각각의 지역에서 기병하여 응대하기로 했지만 沖이 먼저 거병

天은 거병했던 월왕 부자를 비롯하여 韓王·魯王 등 모의에 가담했던 자들을 자살케 하고 그 무리들도 모두 주멸하였으며 월왕 父子의 姓을 虺氏로 바꾸어 皇籍에서 제거하였다.<sup>13)</sup> 특히 武則天은 唐 충실을 주멸하는 과정에서 才德 있는 자들을 먼저 제거했다.<sup>14)</sup> 이는 충실 諸王의 단결력을 와해시켜 李唐皇室의 울타리 기능을 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聖曆 2년(699) 황태자로 복위한 자는 顯, 즉 中宗이었고, 같은 해 10월 태자 顯과 相王 旦의 諸子가 다시 出閣하였다.<sup>15)</sup>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久視 원년(700) 李唐皇室의 복원을 염원했던 天官 侍郎 吉頊이 武則天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간언은 흥미로운 상황 전개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宗室과 外戚은 마땅히 나뉘어야만 천하가 안정됩니다. 지금 太子가 이미 세워졌는데 외척을 여전히 王으로 삼으면, 이는 폐하가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반드시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둘 다 안정될 수 없습니다.” 태후가 말하기를 “짐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일이 이미 이와 같으니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였다.<sup>16)</sup>

한 후 7일 만에 진압 당하자 沖의 부친만이 반란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월왕도 아들 沖이 거병한 소식만 접했을 뿐 패하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기 때문에 곧 전투의지를 상실하였다(『舊唐書』 권76, 「太宗諸子傳」, pp.2661-2662).

- 13) 『新唐書』 권76, 「后妃上」, p.3480, “於是, 韓王元嘉等謀舉兵唱天下, 迎還中宗. 琅邪王沖, 越王貞先發, 諸王倉卒無應者, 遂敗. 元嘉與魯王靈夔等皆自殺, 餘悉坐誅, 諸王牽連死滅殆盡, 子孫雖嬰襪亦投嶺南.”
- 14) 『資治通鑑』 권208, 「唐紀24」, 中宗神龍元年, pp.6585-6586, “初, 武后誅唐宗室, 有才德者先死, 惟吳王恪之子鬱林侯千裏褊躁無才崔玄暉, 又數獻符瑞, 故獨得免.”
- 15) 『資治通鑑』 권206, 「唐紀22」, 則天后聖曆二年, p.6542, “太子·相王諸子復出閣.”
- 16) 『資治通鑑』 권206, 「唐紀22」, 則天后久視元年, pp.6544-6545, “頊頓首曰: 「宗室、外戚各當其分, 則天下安. 今太子已立而外戚猶爲王, 此陛下驅之使他日必爭, 兩不得安也.」 太后曰: “朕亦知之. 然業已如是, 不可何如.” 天官

李唐皇室의 태자가 즉위했으므로 종실 諸王은 당연 李氏여야 하는데, 武氏 외척이 諸王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는 태종 이래 견지해온 봉건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태자를 아들 李氏로 세워 武氏 조카들의 불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武則天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武氏 諸王과 李氏 諸王 사이의 세력균형을 이루게 했다고 생각된다. 武則天 통치기간 武氏 諸王의 황위 탈취를 위한 정변도 일어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李氏 諸王에 의한 당조 회복 시도 역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武則天 통치 말 李唐皇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張易之·張昌宗을 주살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던 자들은 諸王이 아닌 관인들이었다. 神龍 元年(705) 武則天의 병이 더욱 악화하여 張易之·張昌宗 형제가 권력을 장악하자 張柬之와 中臺右丞 敬暉, 司刑少卿 桓彥範, 相王府司馬 袁恕己 5명은 左威衛將軍 薛思行 등 左右羽林兵 500여명을 이끌고 역지·창종 형제의 모반을 구실삼아 정변을 일으켰다. 정변은 성공하여 마침내 廢太子로서 여릉왕 지위에 있던 중종을 복위시켰다.<sup>17)</sup>

중종의 복위로 이당황실이 재건되었지만 韋后에 의해 당조가 다시 위기에 휩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종의 후궁 上官昭容에 의해 韋后에게 천거된 武三思는 그의 아들 武崇訓을 韋后의 딸 安樂公主와 혼인시켜 인척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때 韋后와 함께 실권을 장악한 武三思가 중종 복위에 공을 세웠던 敬暉·桓彥範·張柬之·袁恕己·崔玄暉를 제거하기 위해 중종에게 제안한 것을 주

侍郎은 吏部侍郎으로 吉頊은 聖曆 2년 左臺中丞에서 天官侍郎, 右臺中丞 魏元忠은 鳳閣侍郎, 즉 中書侍郎으로 임명되고 모두 同平章事라 했으므로(『資治通鑑』 권206, 「唐紀22」, 則天后聖曆二年, p.6538) 실질적인 재상이었다.

17) 『資治通鑑』 권207, 「唐紀23」, 中宗神龍元年, pp.6579-6580, “癸卯, 柬之·玄暉·彥範與左威衛將軍薛思行等, 帥左右羽林兵五百餘人至玄武門, 遣多祚·湛及內直郎·駙馬都尉安陽王同皎詣東宮迎太子.”

목할 필요가 있다.

(敬暉 등을 王으로 봉하고 政事를 그만두게 하여 밖으로 공신에 대한 존숭과 사랑을 잃지 않고 안으로는 실로 권력을 빼앗는 것이 낫습니다.<sup>18)</sup>

이는 당시 ‘王’이라는 위상이 예우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력은 보유하지 못했던 정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무삼사의 의도대로 경휘는 平陽王, 환언범은 扶陽王, 장간지는 漢陽王, 원서기는 南陽王, 최현위는 博陵王으로 책봉되었다. 이들은 종종 복위에 공을 세운 五王이라 불렸지만, 이후 지방 자사로 폄관되었다가 관련 인물들 상당수는 제거되었다. 唐初부터 종실 諸王 대부분이 겪어왔던 과정과 유사하다. 왕으로 책봉된 후, 지방 刺史職에 임명되어 중앙권력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궁정 내 정변에 의해 중종의 복위가 이루어진 후, 武三思와 韋후의 정치 농단은 연이은 궁정 정변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일어난 정변은 太子 重俊이 일으킨 것이다.<sup>19)</sup> 韋후 소생이 아닌 太子는 무삼사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安樂公主는 皇太女가 되고자 하는 상황

18) 『資治通鑑』 권208, 『唐紀24』, 中宗神龍元年, p.6591, “三思等因爲上畫策: 「不若封暉等爲王, 罷其政事, 外不失尊寵功臣, 內實奪之權。」上以爲然. 甲午, 以侍中齊公敬暉爲平陽王, 譙公桓彥範爲扶陽王, 中書令漢陽公張柬之爲漢陽王, 南陽公袁恕己爲南陽王, 特進、同中書門下三品博陵公崔玄暉爲博陵王, 罷知政事, 賜金帛鞍馬, 令朝朔望.”이라 했고, 『舊唐書』 권92, 「袁恕己傳」, p.2943, “恕己俄擢拜中書令, 仍加特進, 封南陽郡王, 罷知政事.”과 같이 袁恕己도 정치권력을 제한받았다. 武三思 또한 마찬가지로 권력 제한의 대상이 되어 梁王에서 德靜郡王으로, 定王 武攸暨는 樂壽郡王, 河內王 武懿宗 등 10여명은 國公으로 강봉되었다(『舊唐書』 권7, 「中宗紀」, p.139).

19) 이하 정변이 전개된 과정은 『資治通鑑』 권208, 『唐紀24』, 中宗景龍元年, pp.6611-6612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이었다.<sup>20)</sup> 이에 景龍 元年(707) 태자 중준은 左羽林大將軍 李多祚, 장군 李思沖 등과 함께 羽林千騎兵 300여명을 이끌고 무삼사·무승훈의 집에 가서 그들을 살해했다. 그러나 中宗·韋后·上官婉兒 측 右羽林大將軍 劉景仁이 이끄는 飛騎 100여명과 兵部尚書 定楚客, 左衛將軍 紀處訥의 2천여명 등 숙위병들이 태자를 살해하고, 함께 거병했던 成王 李千里, 그의 아들 天水王 禧 등도 모두 제거하였다.

이 정변으로 무씨세력이 제거된 후, 韋后와 安樂公主의 執政에 방해가 되는 다음 대상은 종종 복위과정에서 공을 세운 皇嗣 相王이었다. 결국 태자 중준의 兵變에 相王과 太平公主가 가담했다는 누명으로 정권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sup>21)</sup> 景龍 2년(708) 임치왕 李隆基는 21세의 나이로 潞州別駕에 임명되어 장안을 떠나 산서 땅으로 가게 된 것이다. 동생 範과 業도 각각 隴州別駕와 陳州別駕로 함께 좌천당한 신세가 되었다.

독단적으로 정권을 운용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武氏 세력과 相王 세력까지 제거한 韋后는 景龍 4년(710) 6월 壬午日 安樂公主와 함께 중종을 독살하였다.<sup>22)</sup> 韋后는 臨朝攝政하여 연호를 唐隆으로 개원하고, 중종 붕어 후 5일째인 丁亥日 16세의 溫王 重茂를 즉위 시켰다. 武則天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권력을 장악하려는 수순이었다. 당시 장안에 있던 隆基는 거사를 함께 도모할 사람들을 모으고 태평공주와 함께 禁軍을 장악하여 중종이 독살당한지 18일째 되는 날 정변을 일으켰던 것이다.<sup>23)</sup>

20) 『舊唐書』 권86, 「中宗諸子」, p.2838, “或勸公主請廢重俊爲王, 自立爲皇太女, 重俊不勝忿恨.”

2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資治通鑑』 권208, 「唐紀24」, 中宗景龍元年, pp.6613-6614에 있다.

22) 『資治通鑑』 권209, 「唐紀25」, 睿宗景雲元年, pp.6641-6642, “安樂公主欲韋後臨朝, 自爲皇太女; 乃相與合謀, 於餅餠中進毒. 六月, 壬午, 中宗崩於神龍殿.”

23) 『資治通鑑』 권209, 「唐紀25」, 睿宗景雲元年, pp.6643-6644, “相王子臨淄

臨淄王 隆基는 오후 헤질 무렵 微服 차림으로 劉幽求 등과 함께 禁苑으로 들어가 당시 금원을 관장하던 鍾紹京을 포섭하여 玄武門으로 진입하였다.<sup>24)</sup> 현무문에 주둔해 있던 羽林營을 장악하여 우립병사들이 모두 합세했고 마침내 韋后·安樂公主·上官昭容 등을 제거하였다.<sup>25)</sup> 태종이 玄武門의 變으로 정권을 장악했듯, 臨淄王 隆基도 玄武門을 장악한 후 羽林兵士의 지지를 얻어 정변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태종이 태자로 책립되었다가 곧 황제로 즉위했듯이 임치왕은 부친 예종을 재즉위시킨 후, 본인은 황태자가 된 것이다. 부친이 황제 지위이므로 황자 隆基는 우선 親王 작위인

王隆基, 先罷潞州別駕, 在京師, 陰聚才勇之士, 謀匡復社稷. 初, 太宗選官戶及蕃口驍勇者, 著虎文衣, 跨豹文韉, 從遊獵, 於馬前射禽獸, 謂之百騎; 則天時稍增爲千騎, 隸左右羽林; 中宗謂之萬騎, 置使以領之. 隆基皆厚結其豪傑.”이라 하여 임치왕 隆基가 潞州別駕를 파하고 京師에 돌아온 경위는 상세하지 않지만, 『新唐書』 권5, 「玄宗紀」, p.121, “景龍四年, 朝于京師, 遂留不遣”이라 하여 이 해 장안 조회의례에 참석한 후 潞州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그가 禁軍을 장악할 수 있었던 계기는 萬騎와 결탁한 것이었다. 즉, 태종 때부터 설치됐던 百騎가 武則天時期에는 千騎라 하여 羽林軍에 소속되었고, 중종시기 萬騎라 불렀는데 이들이 우립군의 정예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4) 『資治通鑑』 권209, 「唐紀25」, 睿宗景雲元年, pp.6644-6645, “庚子, 晡時, 隆基微服與幽求等入苑中, 會鍾紹京廨舍; 紹京悔, 欲拒之, 其妻許氏曰: 「忘身徇國, 神必助之. 且同謀素定, 今雖不行, 庸得免乎!」 紹京乃趨出拜謁, 隆基執其手與坐.”와 같이 庚子日 晡時, 즉 申時에 시작되었으므로 壬午日 중종이 살해된 날로부터 18일째 되는 날이며, 처음에 망설이던 중소경은 부인의 설득으로 임치왕의 거사에 합류했다.
- 25) 이에 관해서는 이어지는 『資治通鑑』 권209, 「唐紀25」, 睿宗景雲元年, pp. 6645-6647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臨淄王의 부하 葛福順은 玄武門에 주둔한 羽林軍 지휘관을 참수하고 羽林兵士들에게 “韋后는 先帝를 鴆殺하고 社稷을 위협하니 지금 韋氏들을 주멸하는데 키가 馬鞭 이상이면 모두 참수하라. 相王을 세워 천하를 안정시킬 것이니 감히 두마음을 품고 반역 무리를 돕는다면 그 죄가 三族에 미칠 것이다.”라 외치자 羽林兵士들이 혼연히 그 명령에 따랐다. 諸衛兵이 太極殿에서 臨淄王 집단을 방어하는 동안 韋后가 飛騎營으로 도망쳤지만 오히려 飛騎에게 살해당했고, 당시 거울을 보며 눈썹을 그리던 安樂公主를 비롯하여 武延秀, 上官昭容 등도 모두 참수되었다.

平王에 책봉되었고, 예종 즉위 후 3일째 되는 날 태자로 책립되었다. 그러나 태평공주와 태자 隆基 사이에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전개되어 태평공주는 蒲州로 축출되었다. 태평공주가 포주에 안치된 다음 날부터 太子監國이 시작되어 政事를 거의 모두 태자 隆基가 관장하였고, 마침내 예종의 양위로 延和 元年(712) 8월 25일, 황태자가 된지 2년만에 황위에 올랐다.

그런데 현종 즉위 당시 7명의 재상 가운데 竇懷貞·蕭至忠·岑羲·崔湜 4명이 태평공주 측근 세력이라 심지어 현종은 고립무원 상태로 표현되기도 했고, 태평공주는 오빠인 上皇 睿宗의 세력에 의지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기 때문에<sup>26)</sup> 어떤 형태로든 현종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태평공주가 주도한 정변이 시작되었다.<sup>27)</sup> 先天 2년(713) 7월 常元楷와 李慈는 羽林軍을 통솔하여 武德殿에 갑자기 진입하고 竇懷貞·蕭至忠·岑羲 등은 南衙에서 거병에 응하고 있었다. 이에 현종은 岐王 範과 薛王 業, 兵部尚書 곽원진, 龍武將軍 왕모중, 殿中少監 강교, 太僕少卿 이령문, 尙乘奉御 왕수일, 內給事 고력사와 함께 대응하여 常元楷·李慈를 참수함으로써 羽林軍을 장악했고 정변이 시작하자마자 진압할 수 있었다. 상원해와 이자는 각각 左羽林大將軍과 知右羽林將軍의 직임을 갖고 있었기에 정변을 일으킬 동력이 있었을 것이지만,<sup>28)</sup> 당시 새롭게 정비된 禁軍인 龍武軍이 현종 휘하에 있었고, 羽林軍

26) 『資治通鑑』 권210, 『唐紀26』, 玄宗先天元年, p.6676, “是時, 宰相多太平公主之黨, 劉幽求與右羽林將軍張暉謀以羽林兵誅之, 使暉密言於上曰: 『竇懷貞、崔湜、岑羲皆因公主得進, 日夜爲謀不軌. 若不早圖, 一旦事起, 太上皇何以得安! 請速誅之. 臣已與幽求定計, 惟俟陛下之命.』” 上深以爲然.”

27) 이하 정변의 내용은 『資治通鑑』 권210, 『唐紀26』, 玄宗開元元年, pp.6683-6686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28) 『資治通鑑』에도 이들의 직임이 나와 있지만, 좀더 분명하게 적시하자면 『舊唐書』 권8, 『玄宗上』, p.169, “先天二年七月三日, 尚書左僕射竇懷貞、侍中岑羲、中書令蕭至忠崔湜、雍州長史李晉、左羽林大將軍常元楷、右羽林將軍李慈等與太平公主同謀, 期以其月四日以羽林軍作亂.”과 같다.

전체를 장악한 것은 황위에 있던 현종측이었기에 정변을 진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sup>29)</sup>

이상과 같이 중종 복위 이후에도 궁정 내에서는 太子 重俊의 舉兵, 중종 독살 이후 臨淄王 隆基의 政變, 예종 즉위 후 太平公主 세력의 난입 등 총 3차례의 정변이 발생하였다. 臨淄王 隆基는 왕의 지위로서 禁軍과 결탁하여 韋后와 安樂公主를 타도하는 궁정정변을 일으키고 武則天 이래로 실세의 지위를 누렸던 태평공주까지 제거하는 兵變을 마무리 지으며 부친의 皇位, 나아가 자신의 황위까지 지켰다. 이처럼 여러 차례의 정변을 거치면서 현종은 더 이상의 궁정정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 조치의 대상은 바로 형제와 황자로 구성된 諸王이었던 것이다.

### 3. 玄宗의 諸王 통제 방식

현종의 형제, 즉 예종의 황자는 본래 총 6명이었으나 6번째 隋王 隆禧는 요절했기 때문에 憲·擣·隆基·範·業 5명만 남았다.<sup>30)</sup> 적장자 憲은 文明 元年(684) 예종이 즉위하자 황태자가 되었다가, 예종이 皇嗣로 강등되자 형제들과 함께 出閣해서 王府를

29) 『資治通鑑』 권210, 『唐紀26』, 玄宗開元元年, p.6683, “景雲初, 以左右萬騎與左右羽林爲北門四軍, 置左右龍武將軍, 以領萬騎, 爲從三品。”와 같이 예종이 재즉위하면서 北衙禁軍의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했다. 唐 前期 禁軍에 대해서는 金澹, 『唐 前期의 北衙禁軍』, 『中國學報』 56, 2007; 鄭淳模, 『唐 前반기 禁軍의 編制와 運用』, 『군사』 84, 2012 참조.

30) 憲과 擣의 본래 이름은 각각 成器·成義였는데 개명했고, 範과 業은 각각 隆範·隆業이었으나 현종 즉위 후 피휘하여 範·業으로 불린 것이다. 사서에는 현종 즉위 전의 기록과 즉위 후 형제들의 이름이 혼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兩唐書 기록에 따라 개명한 이름을 사용한다. 이하 현종을 제외한 나머지 諸王의 책봉정황은 『新唐書』 권81, 『三宗諸子傳』, pp.3596-3603 참조.

열은 바 있다. 둘째 撫는 생모의 출신이 미천하여 武則天이 형제 서열 안에 들이지 않으려 했으나 승려 萬回가 西土樹神이라 속여 받아들여졌다. 垂拱 3년(687) 恆王으로 책봉되었는데 文明 元年(684) 형식적이거나 예종이 황위에 있었으므로 唐初의 諸王 책봉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垂拱 元年(685) 출생한 셋째 현종 隆基도 撫와 함께 垂拱 3년 3세 때 처음 楚王으로 책봉되었다.<sup>31)</sup> 이어 隆基가 永昌 年間(689) 高宗과 武則天의 장남 廢太子 弘의 嗣子로 정해진 것이야말로 武則天의 총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2)</sup> 현종은 天授 3년(692) 7세 때 出閣하여 왕부를 열고 관속을 두었다.<sup>33)</sup> 다음 해 入閣 조치가 취해지므로 비록 짧은 출합기간이었지만, 諸王의 세력이 이미 약화하였고 武則天의 통치로 李唐皇室의 위상이 실추했던 시기임에도 7세의 隆基가 金吾衛將軍 武懿宗을 질책했던 일을 계기로 武則天은 그를 더욱 총애하였다.<sup>34)</sup> 넷째 範은 鄭王으로 책봉되었다가 衛王으로 改封되었고, 다섯째 業은 趙王으로 책봉되었는데 모두 垂拱 3년경의 일로서 諸王 책봉규정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5형제는 부친 예종이 皇嗣로 강등된 이후, 長壽 2년(693) 함께 降封되었다. 즉, 憲은 壽春王, 撫는 衡陽王, 隆基는 臨淄王, 範은 巴陵王, 業은 彭城王으로 降封되어 모두 入閣하였다.<sup>35)</sup>

31) 『舊唐書』 권8, 「玄宗上」, p.165, “(垂拱)三年, 閏七月丁卯, 封楚王.”

32) 『新唐書』 권81, 「三宗諸子傳」, p.3590, “永昌初, 以楚王隆基嗣.”

33) 『舊唐書』 권8, 「玄宗上」, p.165, “天授三年十月戊戌, 出閣, 開府置官屬, 年始七歲.”

34) 『舊唐書』 권8, 「玄宗上」, p.165, “朔望車騎至朝堂, 金吾將軍武懿宗忌上嚴整, 訶排儀仗, 因欲折之, 上叱之曰: 「吾家朝堂, 干汝何事? 敢迫吾騎從!」 則天聞而特加寵異之. 尋却入閣.”

35) 『新唐書』 권4, 「則天皇后紀」, p.93, “二年臘月癸亥, 殺皇嗣妃劉氏、德妃竇氏. 丁卯, 降封皇孫成器爲壽春郡王, 恆王成義衡陽郡王, 楚王隆基臨淄郡王, 衛王隆範巴陵郡王, 趙王隆業彭城郡王.” 趙王 隆은 中山王으로 강봉되었다가 곧 彭城王으로 徙封된 것이다.

『資治通鑑』天授 2년(691)의 기록에 따르면 예종의 아들들이 모두 궁중에 유폐되어 문밖을 나오지 못한 것이 10여년이라 하였으므로,<sup>36)</sup> 5형제의 入閤은 예종과 함께 궁에 유폐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皇嗣 예종이 相王으로 강봉되자 聖曆 2년(699) 예종의 아들들도 다시 궁성 밖으로 出閤하였다.<sup>37)</sup> 이 出閤 후에 武則天은 5형제에게 洛陽의 積善坊에 집을 주어 거주케 하였고, 大足 元年(701) 武則天이 장안으로 갈 때는 함께 동행하여 興慶坊에 또 저택을 하사하였는데 낙양과 장안의 저택을 각각 五王子宅·五王宅이라 불렀다.<sup>38)</sup> 예종을 황사로 강등시키고 그의 황자들을 강봉시켰던 조치가 있는 다음 달 前尚方監 裴匪躬과 內常侍 範雲仙이 황사[예종]를 사사로이 배알했다는 이유로 腰斬을 당한 바 있다.<sup>39)</sup> 따라서 武則天은 예종의 거주지를 황제 근처에 두어 통제하기 쉽게 한 것이고, 그 아들들에 대한 통제도 함께 거주시키는 방법으로 감시했던 것이다.

武則天 통치시기 부친 예종이 받았던 감시와 고통은 고스란히 예종의 아들들에게도 이어졌기 때문에 현종과 그의 형제들은 힘든 시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형제애가 더욱 돈독해졌을 것 같다. 특히 부친이 皇嗣로 강등된 이후, 長壽 2년(693) 皇嗣妃가 되고자 했던 韋團兒가 皇嗣妃 劉氏와 隆基의 생모 德妃 竇氏를 모함하여 모두

36) 『資治通鑑』 권204, 『唐紀20』, 則后天授二年, p.6473, “...與睿宗諸子皆幽閉宮中, 不出門庭者十餘年.”

37) 『資治通鑑』 권206, 『唐紀22』, 則天后聖曆二年, p.6473, “太子、相王諸子復出閤.”

38) 『舊唐書』 권95, 『睿宗諸子傳』, p.3011, “初, 玄宗兄弟聖曆初出閤, 列第於東都積善坊, 五人分院同居, 號『五王宅』. 大足元年, 從幸西京, 賜宅於興慶坊, 亦號『五王宅』.”

39) 『資治通鑑』 권205, 『唐紀21』, 則天后長壽二年, p.6490, “甲寅, 前尚方監裴匪躬、內常侍範雲仙坐私謁皇嗣, 腰斬於市. 自是公卿以下皆不得見.”

武則天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시신도 찾지 못하며 부친조차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sup>40)</sup> 함께 거주하던 형제들의 우애가 돈독해졌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同母兄弟 사이에서도 황위를 다투며 정변을 거친 李唐皇室의 과거를 감안하면, 현종 역시 황위 계승자격 1순위가 아닌데다가, 과연 전적으로 이복형제들의 우애에만 의지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sup>41)</sup> 그러므로 중종이 복위한 신룡 원년(705) 현종 형제들의 정황을 토대로 현종에 의한 궁정정변을 거쳐 예종이 다시 즉위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의 관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종 즉위 후 개원 초반에 취한 형제들에 대한 조처들을 짚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우선 중종 복위 후부터 현종 개원 초반까지 諸王의 작위 현황과 관직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玄宗 5형제의 封爵과 官職<sup>42)</sup>

	이름	중종 복위 705.正月~710.6월		예종 재즉위 710.6월~712.7월		현종 즉위초 712.8월~	사망
1	憲	壽春王 →蔡王	宗正卿	宋王	<b>左衛大將軍</b> 太子賓客 司徒兼蒲州刺史	司空 太尉兼揚州大都督 太常卿	開元29 (741)

40) 『資治通鑑』 권205, 「唐紀21」, 則天后長壽二年, p.6488, “戶婢團兒戶婢團兒爲太后所寵信, 有憾於皇嗣, 乃譖皇嗣妃劉氏、德妃竇氏爲厭咒. 癸巳, 妃與德妃朝太后於嘉豫殿, 既退, 同時殺之, 瘞於宮中, 莫知所在. 德妃, 抗之曾孫也. 皇嗣畏忤旨, 不敢言, 居太后前, 容止自如.”

41) 『新唐書』 권81, 「三宗諸子傳」, p.3596에 따르면, 첫째 憲의 모친은 肅明皇后, 둘째 擣의 모친은 궁인 柳氏, 현종의 모친 竇氏는 昭成皇后로 추증되었다. 範의 모친은 崔孺人, 業의 모친은 王德妃이며, 요절한 隆悌는 후궁 소생으로만 알려져 있다.

42) 爵位 책봉과 官職 임명이 兩唐書에 散在해 있는 관계로 『舊唐書』 권95, 「睿宗諸子傳」, pp.3009-3019과 『新唐書』 권81, 「三宗諸子傳」, pp.3596-3603을 함께 참조하고, 현종은 『舊唐書』 권7, 「玄宗上」, pp.165-16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	撝	衡陽王	司農少卿	申王	右衛大將軍 金吾衛大將軍 司徒兼益州大都督	司徒兼幽州刺史 4개주 刺史	開元8 (720)
3	隆基	臨淄王	衛尉少卿 潞州別駕	平王	殿中兼 內外閑廐·檢校龍武右 軍	皇帝	上元3 (762)
4	範	巴陵王	隴州別駕 太府少卿	岐王	太常卿 左羽林大將軍	○○刺史 太子太傅	開元14 (726)
5	業	彭城王	陳州別駕 太僕少卿	薛王	右羽林大將軍	太子少保 ○○刺史	開元22 (734)

중종 복위 당시 5형제는 武則天 시기 강봉된 상태의 壽春王·衡陽王·臨淄王·巴陵王·彭城王 지위였다. 모두 五王宅에 거주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神龍 원년(705) 중종이 복위한 후, 蔡王에 봉하고 宗正卿에 임명하려했으나 憲이 한사코 사양하였고, 撝는 司農少卿, 隆基는 衛尉少卿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韋后의 전횡이 시작되면서 景龍 2년(708) 4월 隆基는 장안을 떠나 潞州別駕, 範은 隴州別駕, 業은 陳州別駕에 임명되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景龍 4년(710) 6월 壬午日 중종이 봉어하고, 18일째 되는 날인 庚子日 밤 臨淄王 隆基가 주축이 되어 韋后 일당을 주멸하였다. 이 정변이 성공한 뒤, 이틀째 되는 날 5형제에게 임명된 관직과 이로부터 2년 후 현종이 즉위한 다음 형제들에게 임명한 관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韋后 일당 주멸 후 첫째 憲이 左衛大將軍, 둘째 撝가 右衛大將軍에 이어 곧 金吾衛大將軍, 정변을 주도했던 隆基는 內外閑廐·檢校龍武右軍, 넷째 範과 다섯째 業은 각각 左右羽林軍大將軍에 임명되었다. 隆基를 중심으로 위의 두 형은 南衙 12衛 가운데 첫 번째인 左右衛의 좌위대장군과 우위대장군을 나누어 맡았다. 撝가 연이어 맡은 金吾衛는 장안성 치안업무 담당이므로 장안성 전체의 안위는 두 형이 맡은 것이다. 아래 두 동생은 北衙禁軍 중 우립군의 左羽林軍大將軍과 右羽林軍

大將軍을 맡았다. 隆基는 御馬를 관장하는 內外閑廐를 관장하면서 北衙禁軍의 새로운 편제로 성장하고 있던 龍武軍을 검교하였다.

太子監國으로 실질적 통치자였던 황태자 융기가 景雲 2년(711), 姚崇·宋璟의 건의에 따라 岐王 範과 薛王 業 통솔 하의 羽林을 폐한 것은 황권을 강화하는 방편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諸王의 군사권 개입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내재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43)</sup> 禁軍을 장악하여 정변을 실행에 옮겼던 현종은 즉위 후에도 남북 아 禁軍職을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들의 功을 치하하며 우애로 포장된 고위 관직을 除授한 것이다. 이어 태종시기 자주 활용했던 刺史職을 임명하였다. 하지만 선대 황제가 취했던 정책을 계승한다는 명분은 지킨다하더라도 우애 깊은 황제가 형제들을 멀리 지방에 보내는 것은 모순적이었다. 따라서 武則天 시기 이들 형제들이 함께 거주했던 장안의 興慶坊에 다시 거처를 마련하여 거주케 하였다. 즉, 태종이 諸王을 가급적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刺史職에 임명했던 것과 달리, 현종은 諸王을 아예 황제 주위에 두고 감시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는 帝王이라는 頂上의 위치에 있으면서 형제들에 대한 우애를 앞세워 諸王을 통제하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물론 현종의 우애 깊은 행동은 여러 사서에 기록된 바이다. 이를테면 긴 베개를 함께 베고 잤으며 궁궐 안에서는 일반인처럼 형제들에게 절하고 꿇어앉는다거나, 동생 業을 위해 약을 다리다 수염을 태운 일화는 유명하다.<sup>44)</sup> 그러나 ‘近世帝王莫能及’ 즉, 어떤 帝

43) 『資治通鑑』 권210, 『唐紀26』, 睿宗景雲二年, p.6662, “罷岐·薛二王左右羽林, 使爲左·右率以事太子.”

44) 『資治通鑑』 권211, 『唐紀27』, 玄宗開元二年, p.6701, “上素友愛, 近世帝王莫能及. 初即位, 爲長枕大被, 與兄弟同寢. 諸王每旦朝於側門, 退則相從宴飲、鬥雞、擊球, 或獵於近郊, 遊賞別墅, 中使存問相望於道. 上聽朝罷, 多從諸王遊, 在禁中, 拜跪如家人禮, 飲食起居, 相與同之. 於殿中設五幄, 與諸王更處其中, 謂之五王帳. 或講論賦詩, 間以飲酒、博奕、遊獵, 或自執絲竹;

왕도 이에 미칠 수가 없었다는 표현은 바꾸어 생각하면 帝王의 지위에서 지나치게 과하다고도 읽혀진다. 즉 과장된 행동으로 그의 諸王 통제를 가리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앞서 언급했던 武則天의 五王宅은 훗날 현종이 즉위한 후 연용되었으며 諸王의 擅權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은 틀림없다.<sup>45)</sup> 그렇지만 武則天이 隆基를 비롯한 자신들에게 취했던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조처를 그대로 이용한다면 황제도 형제들도 모두 억압이라고 느낄 것이다. 따라서 현종은 한정된 공간, 감시 가능한 공간을 자신의 우애 깊은 행동으로 포장하여 형제들에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통제의 테두리를 둘러놓았던 것이다.

唐 皇帝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왕조 황제들 가운데 우애 깊기로 잘 알려진 황제는 현종이 아니라 오히려 讓皇帝로 추시된 현종의 형 宋王 憲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憲은 武則天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시기 부친 睿종이 황위에 있었기에 형식상 황태자로 책립된 적이 있었다. 때문에 睿종은 태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적장자이자 이전에 황태자였던 憲을 고려했으나 韋后 일당을 주살하는 정변에 隆基의 功이 컸기에 망설였다. 이때 憲이 평시에는 적장자가 우선이지만 국난에는 功을 세운 자가 먼저라며 太子位를 隆基에게 양보했다. 아마도 憲은 과거의 교훈, 즉 태종이 당조 창업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적장자 建成이 황태자가 되어 골육상잔이 빚어졌던 일을 거울삼아 먼저 양보했을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武則天이 중종을 폐하고 睿종을 황제로 삼았다가 武周革命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부친 睿종의 처신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神龍 元年(705) 중종이

成器善笛，範善琵琶，與上共奏之。諸王或有疾，上爲之終日不食，終夜不寢。業嘗疾，上方臨朝，須臾之間，使者十返。上親爲業煮藥，回飈吹火，誤燕上須，左右驚救之。上曰：“但使王飲此藥而愈，須何足惜！”

45) 孫英剛, 『隋唐長安的王府與王宅』, 『唐研究』 9, 2003, p.193.

복위에 성공한 후 동생 〔예종〕을 皇太弟로 삼으려 했을 때 한사코 거절했던 모습과 사뭇 닳아있기 때문이다.<sup>46)</sup> 이렇게 太子位를 양보한 대가로 憲은 實封 2천호를 비롯하여 비단·양마·노비·저택·上田 등을 받았다. 둘째 형 擡는 성품도 너그럽고 이을 後嗣도 없어 현종이 즉위한 후에도 크게 걱정할만한 인물이 아니었고 막내 동생 業 또한 특별히 문제될만한 일은 없었다.

현종의 바로 아래 동생 岐王 範은 학문을 즐기고 서예도 뛰어나며 儒士들을 좋아하였다. 그런데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예우하면서 당시 讖緯에 능했던 駙馬都尉 裴虛己와 왕래하고 劉廷琦·張諤과 교유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종은 虛己·廷琦·諤를 모두 폄관시켰다. 또한 이보다 앞서 開元 元年(713) 張說이 岐王과 몰래 왕래한 적이 있었다. 당시 姚崇이 재상이 되자 張說은 몰래 範을 찾았고, 이 사실을 요승이 현종에게 알리자 화를 내며 御史中丞과 함께 자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이다.<sup>47)</sup> 결국 張說도 相州 刺史로 좌천되었다. 張說과의 왕래나 裴虛己·劉廷琦·張諤 등과의 왕래 때도 岐王은 처벌하지 않았다.<sup>48)</sup> 형제들의 우애를 믿으며 서로 경쟁하는 자들이 諸王에게 빌붙으려는 것이므로 결코 형제들

46) 『舊唐書』 권7, 「睿宗紀」, p.152, “神龍元年, 以誅張易之昆弟功, 進號安國相王, 遷太尉, 加實封. 其年立爲皇太弟, 固辭不受.” 『資治通鑑』 권208, 「唐紀24」, 中宗神龍元年, p.6614, “相王寬厚恭謹, 安恬好讓, 故經武、韋之世, 竟免於難.”에서 相王의 처신을 잘 알 수 있다.

47) 『資治通鑑』 권210, 「唐紀26」, 玄宗開元元年, pp.6692-6693, “姚崇既爲相, 紫微令張說懼, 乃潛詣岐王申款. 他日, 崇對於便殿, 行微蹇. 上問: 「有足疾乎?」 對曰: 「臣有腹心之疾, 非足疾也.」 上問其故. 對曰: 「岐王陛下愛弟, 張說爲輔臣, 而密乘車入王家, 恐爲所誤, 故憂之.」 癸醜, 說左遷相州刺史.” 라고만 기록했으나 胡三省 注에 현종이 조사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48) 이하의 내용은 『新唐書』 권81, 「三宗諸子傳」, p.3601, “駙馬都尉裴虛己善讖緯, 坐私與範游, 徙嶺南. 廷琦貶雅州司戶, 諤爲山莊丞, 然帝於範無少間也, 謂左右曰: 「兄弟情天至, 於我豈有異哉! 趨競者彊相附, 我終不以爲繼介.」”을 참조하였다.

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현종 병환시 동생 說王이 처남인 內直郎 韋賓, 그리고 殿中監 皇甫恂과 함께 길흉을 의논했다가 위빈은 사형에 처하고 황보순은 錦州刺史로 폄관된 바 있다. 이때도 동생의 손을 부여잡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형제를 시기한다면 天地가 벌할 것이라며 동생 부부는 처벌하지 않았다.

중종 복위 후 노주별가로 장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임치왕 시절의 현종은 능력 있는 士人들을 은밀히 모아 정변을 준비하였다.<sup>49)</sup> 현종이 그 자신의 입장을 돌이켜 본다면 諸王과 士人의 교류를 누구보다도 예사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물론 諸王이 관료들과 私的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漢代에도 律로 제어했던 바 있다.<sup>50)</sup> 그러나 현종은 우애를 앞세워 諸王 대신 주변 관련자들만 처벌하고, 매번 하늘에 빗대어 자신의 우애를 강조했는데, 이는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하늘을 거론하며 우애를 강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현종은 과장되고 강요된 우애로 형제들을 함께 거주시켜 통제했던 것과 흡사한 방법을 皇子들에게도 적용하였는데, 곧 出閣시키지 않는 것이었다. 일찍이 태종의 長孫皇后가 사망했을 당시 晉王 治[고종]가 어리다는 이유로 출합시키지 않은 바 있다.<sup>51)</sup> 이후에도 武則天 시기 나이 어린 豫王 旦[예종]을 출합시키지 않았고, 溫王 重茂[殤帝]만이 17세인데도 궁중에 거주하다가 황

49) 『舊唐書』 권8, 「玄宗上」, p.166, “屬中宗末年, 王室多故, 上常陰引材力之士以自助.”

50) 『漢書』 권38, 「高五王傳」, p.2002, “自吳楚誅後, 稍奪諸侯權, 左官 附益阿黨之法設.”

51) 太宗時期부터 玄宗 開元以後 諸王의 出閣에 대한 기록은 『新唐書』 권82, 「十一宗諸子傳」, pp.3615-3616, “初, 文德皇后崩, 晉王最幼, 太宗憐之, 不使出閣. 豫王亦以武后少子不出閣, 嗣聖初, 即帝位, 及降封相王, 乃出閣. 中宗時, 譙王失愛, 遷外藩, 溫王年十七, 猶居宮中, 遂立爲帝. 開元後, 皇子幼, 多居禁內, …” 참조.

제로 즉위했다. 반면 譙王 重福은 황제의 사랑을 받지 못해 外藩으로 나갔다. 현종은 諸王을 출합시키지 않았던 배경 가운데 황자가 어리거나 총애를 받았던 점을 부각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즉 현종은 즉위 후<sup>52)</sup> 황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궁성 안에 거주시켰고, 황자들이 점차 성장하자 安國寺 동쪽에 大宅을 지어 나누어 살게 했으며 이를 十王宅이라 하였다. 현종은 총 30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7명이 요절하고 숙종을 제외한 22명만 열전에 채록되었지만, 그 중에도 일찍 사망한 황자들이 있기 때문에 十王宅은 단지 10명의 저택은 아니고, 慶王·忠王·棣王·鄂王·榮王·光王·儀王·穎王·永王·延王·盛王·濟王 등 십수명이라 상징적으로 십왕택이라 부른 것이다.<sup>53)</sup> 현종은 아버지로서 자식에 대한 慈愛의 표현으로 가까이에서 살게 한다는 것이었지만, 개원 25년(737) 태자를 비롯한 3명의 아들을 庶人으로 강등시키고, 결국 하루에 3명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만으로도<sup>54)</sup> 현종의 자식들에 대한 냉정한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예종이 즉위했다가 장안년간 相王으로 강봉된 후 출합하였을 때 王府의 위치를 고려하면 諸王에 대한 통제가 목적이었음이 잘 드러난다.<sup>55)</sup> 즉 당시 相王宅은 太極宮과 大明宮 사이의 長樂坊

52) 十王宅의 시작에 대해 『新唐書』에는 ‘開元後’, 『資治通鑑』에는 ‘上卽位’, 『舊唐書』에는 ‘先天之後’라 하였는데, 모두 현종 즉위 초를 가리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53) 『新唐書』 권82, 「十一宗諸子傳」, p.3616, “既長, 詔附苑城爲大宮, 分院而處, 號「十王宅」, 所謂慶、忠、棣、鄂、榮、光、儀、穎、永、延、盛、濟等王, 以十, 舉全數也.”

54) 『新唐書』 권82, 「十一宗諸子傳」, p.3608, “帝意決, 乃詔: 「太子瑛、鄂王瑤、光王琚同惡均罪, 並廢爲庶人; 鏹賜死。」瑛、瑤、琚尋遇害, 天下冤之, 號「三庶人」.” 당시 十王宅에 거주하던 鄂王 瑤와 光王 琚가 太子 瑛과 함께 현종의 총애를 받던 武惠妃를 불평한데서 비롯되어 결국 謀反罪로 처형당한 사건이다.

55) 孫英剛, 앞의 논문, pp.191-193에서는 高宗諸子の 王宅 위치 및 相王宅을 비롯하여 16王宅의 위치도 고증해서 당시 王宅이 모두 控制하기 위함

에 설치되었으며, 이는 控制에 용이함이 목적이었는데, 현종시기의 十王宅도 바로 태극궁과 대명궁 사이에 위치했고 북변과 금원은 서로 인접하여 제한적 거주지역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종은 과거 武則天이 예종을 상왕으로 강봉시킨 후 궁성 안에 거주시켰던 이유가 감시에 있었다는 점을 활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현종은 親王으로 책봉한 황자들에게 어떤 관직을 부여했을까? 태평공주와의 대결에서 최종 승리한 현종이 친왕인 형제들의 禁軍 통수권을 제거한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다. 잦은 궁정 정변에서 禁軍의 역할이 중요했고, 현종 자신도 禁軍을 활용했기 때문에 황제가 된 자신 외에 정변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취한 조치였다. 즉위하자마자 五王子宅을 조성하고, 황자들도 함께 거주시켜 이른바 十王宅을 탄생시킨 현종이 황자들의 관직에도 어떤 주의를 했으리라 여겨지므로 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양당서에 채록된 22명의 현종 황자들 중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 사망한 8번째 · 11번째 · 16번째 · 17번째 · 18번째 · 19번째 · 22번째 황자와 方士를 좋아하여 평생 道士服만 입었던 21번째 황자 8명을 제외하면 14명이다. 또한 둘째 瑛이 開元 3년(715) 황태자로 책립되었다가 開元 25년(737) 폐위되었으므로 諸王 범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고, 셋째 황자 肅宗이 開元 26년(738) 황태자로 정해졌으므로 그의 諸王 시절을 보아야 하므로 결국 총 14명 諸王의 관직을 분석하면 될 것이다.

첫째 琮과 둘째 瑛이 景雲 元年(710) 각각 許昌郡王 · 眞定王으로 책봉되었던 것은 당시 예종이 황제였고, 현종이 황태자 지위였으므로 諸王 책봉규정에 부합한다. 景雲 2년(711) 출생한 숙종이 2세에 陝王으로 책봉된 것은 현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라 역시 친왕 책봉규정에 따른 것이며, 다른 황자들도 모두 친왕 책봉규정

---

이였음을 설명하였다.

에 따르고 있다. 단, 태종시기 친왕의 봉호가 춘추천국시대 諸侯國名을 사용한 것에 비해 현종시기는 기본적으로 州名을 따른 것에 차이가 있다.<sup>56)</sup> 본고에서는 황자들의 친왕 작위를 생략하고 관직에만 초점을 맞추되, 현종이 정변을 거친 경험에 비추어 즉위 초 諸王을 어떻게 관리할까를 구상했을 것이므로 개원년간의 관직만 살펴본다.

〈표 2〉 玄宗 황자들의 開元年間 官職<sup>57)</sup>

순서	이름	관직	순서	이름	관직
1	琮	安西大都護, 河東關內隴右諸蕃大使	13	璈	遙領安東都護
3	亨	安西大都護, 河西四眞諸蕃落大使	16	璘	荊州大都督
4	琰	太原牧, 太原以北諸軍節度大使	18	瑁	遙領益州大都督
5	瑤	遙領幽州都督, 河北節度大使	20	玢	遙領安西大都護
6	琬	京兆牧, 隴右節度大使	21	琦	揚州大都督
8	琚	廣州都督	26	珙	左衛大將軍
12	璩	河南牧	30	璪	右千牛衛大將軍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원년간 황자들 대부분의 관직은 都護·牧·都督 및 使職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지역에 파견되었던 것은 아니고 모두 “遙領”이라 하여 虛銜에 불과했다. 26번째 珙과 30번째 璪이 남아 諸衛의 대장군직에 임명된 점이 눈에 띈다. 璪은 개원 23년(735) 右千牛衛大將軍에 제수되었으나 다음 해 사망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된다. 珙이 左衛大將軍에 임명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개

56) 張紅, 「唐太宗與唐玄宗皇子封王特點之比較」, 『宜春學院學報』 34-10, 2012, pp.75-77.

57) 〈표 2〉 항목의 순서는 황자들의 출생순서를 의미하고, 이름은 몇차례의 개명이 있었지만 『新唐書』 권81, 「十一宗諸子傳」 pp.3606-3615에 기록된 이름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원 23년 풍왕에 책봉되었고, 천보 15년(756) 현종이 蜀으로 피신할 때 武威都督에 임명되었으므로 그 사이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珙이 좌위대장군 직임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다가 허함일 수도 있고, 궁정정변에서 北衙禁軍이 南衙 16衛보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禁軍職은 수여하지 않았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현종 본인은 예종의 皇子이자 親王 지위에서 殿中監 및 兵馬로 활용될 御馬를 관장하는 內外閑廄, 북아금군인 龍武右軍을 겸교하며 정변을 주도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황제로 즉위한 현종은 자신의 황자이자 친왕들을 한 곳에 거주시키면서 虛銜의 관직을 부여했다. 심지어 당초의 규정이었던 친왕의 왕부 개설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미 高宗·中宗時期에는 相王府의 長史를 宰相이 겸하고, 魏王·雍王·衛王府의 경우는 尙書가 겸하였으며, 심지어 徐王·韓王은 刺史로 임명되어 왕부관원이 지방관과 동일시되면서 그 위상은 점점 실추되었다.<sup>58)</sup> 이후 현종시기 책봉된 諸王 대부분이 出閣을 하지 않자 왕부 관원의 위상은 더욱 낮아졌으며, 관부의 정원이 감소하는 것도 당연했다.<sup>59)</sup> 당 창업 이전에 해당하는 고조의 조부 李虎, 부친 李昞 자제들의 기록으로부터 唐末 昭宗의 황자 및 그 후손들까지를 기록한 『新唐書』의 열전 다섯 권 마지막 부분에 贊者가 내린 평가는 큰 의미를 던져준다.

唐 중엽이래로 宗室의 자손 대부분이 京師에 거주했으며, 비록 王으로 책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匹夫와 차이가 없었다.<sup>60)</sup>

58) 『新唐書』 권49하, 「百官4下」, p.1305, “高宗、中宗時, 相王府長史以宰相兼之, 魏、雍、衛王府以尙書兼之, 徐、韓二王爲刺史, 府官同外官, 資望愈下.”

59) 『新唐書』 권49하, 「百官4下」, p.1305, “玄宗諸子多不出閣, 王官益輕而員亦減矣.”

60) 『新唐書』 권82, 「十一宗諸子」, p.3640, “贊曰: 唐自中葉, 宗室子孫多在京師, 幼者或不出閣, 雖以國王之, 實與匹夫不異, …”

위에서 말하는 ‘唐 중엽’이라는 시점은 바로 현종시기임을 알 수 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實職이나 王府는 물론 없고, 都護·都督 및 刺史職은 모두 虛銜으로 現地에 파견되지 않았으며 감시와 통제에 용이하도록 京師에 거주시켰다. 唐 前期 몇 차례의 정변을 거치면서 諸王은 황실의 울타리 기능으로서의 역할보다 皇權에 대한 경쟁자라는 인식이 부각되어 ‘王’이라는 形骸化한 작위만을 보유한 존재로 전락해갔던 것이다.

#### 4. 맺음말

콩을 삶기 위해 콩대를 태우니, 콩이 가마 속에서 소리 없이 우는 구나! 본디 한 뿌리에서 같이 태어났거늘 서로 괴롭히기가 어찌 이리 심할까!<sup>61)</sup>

曹植이 자신을 콩에, 형 魏文帝 曹丕를 콩대에 비유하며 형제간의 불화를 표현했던 유명한 「七步詩」이다. 일찍이 曹操의 後嗣를 둘러싸고 曹植을 견제하던 曹丕는 황제로 즉위한 후 여러 차례 曹植의 封地를 옮기거나 엄격하게 감시했다.<sup>62)</sup> 司馬炎은 禪讓에 의해 비교적 쉽게 정권을 탈취한 배경 중 하나가 曹魏의 지나친 황족 억압에 기인했다고 여기고 諸王을 책봉하여 왕조의 울타리로 삼게 했으나, 결국 八王의 난으로 왕조멸망을 재촉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왕조 흥망에 諸王이 중요한 관건임을 인정한 唐은 창업

61) 『三國演義』 第七十九回, 「兄逼弟曹植賦詩, 姪陷叔劉封伏法」, p.493, “丕又曰: 「七步成章, 吾猶以爲遲. 汝能應聲而作詩一首否?」植曰: 「願即命題」. 丕曰: 「吾與汝乃兄弟也. 以此爲題. 亦不許犯著『兄弟』字樣」. 植略不思索, 即口占一首曰: 煮豆燃豆其, 豆在釜中泣. 本是同根生, 相煎何太急!”

62) 『三國志』 권19, 「陳思王植」, pp.561-576, “其年改封鄴城侯. 三年, 立爲鄴城王, 邑二千五百戶. 四年, 徙封雍丘王. … 太和元年, 徙封浚儀. … 三年, 徙封東阿. … 其二月, 以陳四縣封植爲陳王, 邑三千五百戶.”

초부터 꾸준히 諸王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왔다. 이전 왕조에서 얻은 諸王政策에 대한 교훈 및 唐初부터 발생했던 정변에서 諸王의 역할을 인지했던 현종은 성공적으로 諸王을 관리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형제간의 불화를 콩과 콩대에 빚댄 曹植의 詩 때문에 동생을 핍박했던 황제로 잘 알려진 魏文帝와는 대조적으로 玄宗은 우애 깊은 황제라는 유명세도 갖게 되었다.

통치기간을 ‘開元之治’라는 盛世로 평가받았던 玄宗은 역시 ‘貞觀之治’의 태종처럼 궁정정변을 거쳐 황제로 즉위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둘 다 諸王의 신분으로서 궁정정변을 일으키고 즉위한 이들에게 주어진 공통의 과제는 諸王이 또 다시 정변을 일으키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는 것이었다. 태종시기 諸王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정비된 이래, 武則天은 재능과 덕망 있는 諸王부터 제거했기 때문에 그녀가 황위에 오를 무렵 李唐皇室 諸王의 저항으로는 武周革命을 저지할 수도 없었다. 중종 복위과정에서는 오히려 관료들이 주도가 되어 唐을 회복시킬 수 있었고, 복위에 공을 세운 敬暉·桓彥範·張柬之·袁恕己·崔玄暉 5명은 각각 왕에 책봉되어 五王이라 불렸다. 그러나 이들은 刺史로 폄관되거나 권력의 증추에서 제거되었기 때문에 마치 唐初부터 종실의 諸王이 겪어 온 과정과 흡사하였다. 당시 ‘王’이라는 작위, 諸王이라는 존재가 예우만을 갖는 허상일 뿐 실질적 권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지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종 복위 후, 韋后와 安樂公主의 정치농단은 먼저 태자 重俊의 정변을 불러일으켰고, 중준이 제거되자 韋后 일파는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太平公主와 臨淄王 隆基를 정권의 중심에서 떨어뜨려 놓았다. 태자 중준의 정변 당시 좌우림군은 태자측, 우우림군은 위후측으로 나뉘는 데다가 현무문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한 점을 파악한 臨淄王 隆基는 비밀리에 우림병사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태평공주와 함께 위후 일당을 제거하고 부친 예종을 다시 즉위시킨 현종의 다음 정적은 태평공주 일파였다. 상당수의 재상들을 비롯

해 우림군의 일부를 장악한 태평공주가 정변을 일으킬 수 있는 무력을 갖추긴 했으나, 당시 우림군 전체를 비롯하여 금군으로서 체제를 갖춘 左右龍武軍까지 통솔한 현종에 의해 태평공주 세력은 제거되었다. 현종은 武則天 통치기간 무기력했던 諸王의 현실을 감안했을 것이고, 정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禁軍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것이기에 우선 禁軍을 활용하여 거사를 도모했고, 정변에 성공한 후에는 諸王에 대한 관리를 진행시켰다.

諸王 신분으로서 정변을 주도하고, 또한 궁정정변에서 중요한 금군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현종은 즉위 후 금군을 통제하고, 제왕을 관리해야 했다. 예종이 다시 즉위한 景雲 元年(710) 직후에는 현종의 형제들이 左右羽林軍 및 南衙 諸衛의 대장군직까지 맡아 황권을 보위하고 있었다. 이는 태평공주 일파의 병변을 쉽게 끝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황제로 즉위한 현종은 형제들의 금군직을 파하고 태종 이래로 견지해 온 刺史職 또는 司空·司徒·太子少保와 같은 명예직을 부여했다. 태종시기부터 諸王을 자사직에 임명했던 관례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이들을 먼 지방으로 보낸다면 우애 깊기로 잘 알려진 현종에게는 모순적인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형제들을 우애라는 美名 아래 長安城 내에 함께 거주시켰다. 이 착안은 武則天 통치시기 현종 자신이 경험했던 바에 근거했던 것이다.

臨淄王 시절 자신과 그의 형제들에게 취했던 武則天의 五王宅은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조치였고, 현종이 즉위 후 이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야말로 분명 감시와 통제기능을 활용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종은 한정된 공간, 감시 가능한 공간을 우애로 포장하여 황제 자신도 왕래하며 형제들에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함으로써 통제의 테두리를 자연스럽게 설정하였다. 관료들과 諸王이 교유한 경우 관료들을 좌천시키거나 엄벌에 처하면서도 형제들은 별주지 않고 감쌌다. 현종의 우애를 평가하며 어느 帝王도 이렇

수 없었다는 표현은 바꾸어 생각하면 帝王으로서 과한 것으로도 읽혀진다. 따라서 우애를 표현하는 과장된 행동으로 형제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가리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형제들을 함께 거주시키는 방법은 皇子들에게도 적용시켜 十王宅·百孫院을 만들었다. 황자들에게는 虛銜의 관직을 임명하고 함께 거주시키면서 宦官으로 하여금 감시하도록 했다. 황자들 가운데 금군직이라고 할 만한 관직에 임명된 경우도 있었지만, 임명된 다음 해 사망하거나 당시 금군직의 위상을 고려할 때 허함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이처럼 현종은 태종의 諸王 관리 방법 가운데 虛銜의 관직 임명을 활용하는 한편, 무척천이 자신과 형제들을 함께 거주시켰던 방법도 이용하였다. 이는 즉위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정변을 경험한 현종이 諸王을 황권에 대한 도전자·경쟁자로서의 성격에 주안점을 두고, 또 다른 정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필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형제들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의 우애를 표현하고, 황자·황손들에게는 늘 가까이서 보살핀다는 자애를 내세워 그들로 하여금 갇힌 공간이라 느끼지 못하게 했다. 현종 통치 시기 과장된 盛世를 묘사하는데 덧붙여진 황제의 ‘우애와 자애’의 이면에는 ‘감시와 통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황실의 울타리이자 황권에 대한 도전자·경쟁자도 될 수 있는 諸王, 즉 兩刃之劍이라 할 수 있는 諸王은 唐 前期의 궁정정변을 거치며 후자로서의 성격만 부각되어 통제의 대상이 되어 갔다.

## 참고문헌

### 1. 사료

『開元天寶遺事』(五代, 王仁裕, 中華書局, 2006.

『舊唐書』(後晉, 劉昫, 中華書局, 1991.

- 『唐六典』(唐, 李林甫, 中華書局, 1992.  
 『唐會要』(宋, 王溥, 上海古籍出版社, 1991.  
 『新唐書』(宋, 歐陽修, 中華書局, 1991.  
 『資治通鑑』(宋, 司馬光, 中華書局, 1992.  
 『三國演義』(明, 羅貫中), 三民書局, 1998.  
 『三國志』(晉, 陳壽), 中華書局, 1994.  
 『漢書』(漢, 班固), 中華書局, 1983.

## 2. 논문

- 金 滸, 「唐初의 諸王 책봉제」, 『中國史研究』 125, 2020.  
 金 滸, 「唐太宗 貞觀年間の 諸王 관리」, 『大丘史學』 143, 2021.  
 孫英剛, 「隋唐長安의王府與王宅」, 『唐研究』 9, 2003.  
 劉思怡, 「唐代宗室法律管理情況研究」, 『唐史論叢』 24, 2017.  
 布目潮瀨, 「唐代長安における王府・王宅について」, 『布目潮瀨中國史論集』下卷, 汲古書院, 2003.  
 張 紅, 「唐太宗與唐玄宗皇子封王特點之比較」, 『宜春學院學報』 34-10, 2012.  
 鄭淳模, 「唐 전반기 禁軍의 編制와 運用」, 『군사』 84, 2012.  
 黃約琿, 「試論垂拱4年李唐宗室反武之役」, 『唐代文化研討會論文集』, 文史哲出版社, 1991.

## 3. 단행본

- 閻守誠·吳宗國 共著, 임대희·우성민 옮김, 『당현종』, 서경문화사, 2012.  
 任士英 著, 류준형 옮김, 『황제들의 당제국사』, 푸른역사, 2016.  
 王壽南, 『唐代政治史論集』, 臺灣商務印書館, 2004.  
 韋慶遠 主編 『中國政治制度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3.  
 許道勛·趙克堯 著, 『唐玄宗傳』, 人民出版社, 1995.

(투고일: 2022. 10.31 심사완료일: 2022. 12.22 게재확정일: 2022. 12.23)

김호

소 속: 경남대학교 고운학연구소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 고운학연구소

전자우편: ohkimho@nate.com

[Abstract]

## The Control Wrapped in Friendship and Kindness

– The Control over the Kings in Tang Xuanzong Period –

Kim, Ho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control over the Kings in Tang Xuanzong Period. Xuanzong caused a royal coup under the status of King, and the common task given to those who ascended the throne was to crack down on the King to prevent another coup. Xuanzong abolished his brothers' military posts and granted them the provincial governors or honorary posts. The Residences of Five Kings of Wuzetian, which Xuanzong took to himself and his brothers during the reign of King Linzi, were a kind of house arrest, and the fact that Xuanzong used it as it was after ascending the throne must have utilized the functions of monitoring and control. However, Xuanzong naturally set the boundaries of control by paving the limited space and observable space with brotherly affection, allowing the emperor himself to come and go and let his brothers enjoy the freedom to their heart's content. The method of having brothers live together was also applied to the sons and grandsons, making the Residences of Ten Kings and Houses of Hundreds Grandsons. It is thought that the dark shadow of monitoring and control was cast behind the emperor's brotherly affection and parental affection, which was added to the description of the exaggerated a prosperous ages of Xuanzong. As a double-edged sword that served as a fence for the imperial family and as a challenger to the imperial authority, the kings only emerged as contedners in early Tang Dynasty and became the subject of control.

Kew Words: Xuanzong Emperor Kings Royal Guards Coup Residences of Ten Kings Houses of Hundreds Grandsons